

광양시 태인동 맞춤형 복지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나서

통장·주민들 협력해 시의 각종 복지제도 안내

생활비·의료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해

광양시 태인동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된 맞춤형 복지팀은 통장, 주민들과 협력해 시의 각종 복지제도에 대

해 안내하고, 복지·의료전문가들과 함께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생활비, 의료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동절기 위험요인이 높은 장애인가구와 질환이 있는 정장년 1인 가구,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19가구의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난방용 물품(전기장판, 보일러 등)과 부식(쌀, 김치, 통조림)을 지난 10~11월 두 달에 걸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취학 아동가정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침대와 책상을 지난 11월 한 가정에 지원했다.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후원된 식품과 생활용품은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힘쓰고 있다.

유영란 맞춤형복지팀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취약계층 대상자의 마음건강 돌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 주암면, 동절기 취약계층 집중발굴 및 지원

민·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추진



순천시 주암면 행정복지센터는 동절기를 맞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민·관이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주암면은 오는 18일까지 이장단을 통해 각 마을별 어려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수시로 마중물보장협의

체를 비롯한 주민자치회, 부녀회, 주암발전추진위원회, 복지기동대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을 활용한 지역자원 발굴에도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휴·폐업자, 실직자,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등을 집중 발굴하여 공적서비스 외 주암면 지역 자체 자원인 행복나눔펀딩을 활용하여 생계, 의료, 집수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강진군 군동면 지사체, 취약계층 난방용품 지원

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60가구에 전기요 전달



지난 3일 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공동위원장 윤호경)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기타 취

약계층 60가정에 264만 원 상당의 난방용품 전기요를 지원했다. 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군

동면지사협)는 군동면 지정 모금처 ‘나눔 공간’ 심시일반 후원금으로 올 겨울 한파를 대비해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문풍지, 단열 에어캡, 난방용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방충망 수리, 교체 등 4가정의 소규모 집수리를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군동면지사협은 겨울나기 나눔 사업 ‘함께 나눠 따뜻해, 고마워’에 주민들이 동참해 김장김치 및 동치미, 떡국 등을 저소득 취약계층 300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동면새마을부녀회에서도 고추장 40개를 후원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읍 새마을부녀회, 소외된 이웃위해 김장담그기

무안읍 새마을부녀회(회장 박필순)는 지난 7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김장김치 500여포기를 담궈 독거노인, 수급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 55세대와 마을 경로당 43개소에 전달했다. 김치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 안부를

묻고 정성껏 담은 김치를 전달해 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필순 회장은 “새마을부녀회에서는 회원들의 참여로 매년 김장담그기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함과 희망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옥 무안읍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새마을부녀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여수시, 청년마음 상담 및 치유 운영

여수시는 진로와 취업문제, 코로나 블루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잇잖아요, 비밀이에요!’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개

인별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하게 됐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신청자 중 선착순 50명에 대해 여수시청년지원센터(중앙시장 2층)에서 무료로 한

시간 가량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방법은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MBTI, SCT, HTP 등 심리검사를 통한 성향파악과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고민을 상담하는 절차로 진행하며, 신청은 7일부터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여수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